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1월 10일 (제1279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걸림돌을 디딤돌로!

멀리뛰기나 높이뛰기를 잘하는 방법은 구름판을 잘 밟는 것이다. 도약할 때 구름판을 밟고 뛰어올라 공중을 뛰듯이 최대한 멀리 날아가는 것이 멀리뛰기 선수요, 구름판을 밟고 날아올라 수평 막대를 넘는 것이 높이뛰기 선수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뛰기 선수요, 높이뛰기 선수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앞에 구름판을 두신다. 하나님이 때론 문제를, 때론 고난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밟고 멀리 가고, 높이 오르길 원해서다.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디딤돌 삼아 밟고 뛰라 하신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도약할 수 있는 구름판이었다. 사울과 그의 형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었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구름판 삼고 디딤돌 삼아 뛰어넘더니 왕이 되었다. 요셉 역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구름판 삼아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다. 나 역시 온갖 모함과 핍박을 구름판 삼아 밟고 뛰어넘더니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자고로 구름판은 클수록 좋은 법. 문제가,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가끔 기록이 나쁜 선수들이 말한다. “오늘 따라 구름판이 작게 보였어요.”라고. 구름판이 크게 보여야 잘 밟아 기록이 좋아진다는 것 아닌가. 큰 문제가 당신을 유명 인사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골리앗이 거인이었기에 다윗이 물맷돌로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내가 늘 말하는 것이 있다. ‘내 앞을 막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가 문제’라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에 덤비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신다. 흥해 앞에 선 모세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앞에 놓인 문제를 걸림돌로 볼 것인가, 디딤돌이나 구름판으로 볼 것인가? 생각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다. ‘이것이 멀리 가고 높이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진실된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 역사는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2000년 이전에도 목사님은 일본과 미국, 캐나다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는 주로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새천년이 시작되자마자 인도네시아(Indonesia) 자카르타(Jakarta)집회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동안 그 수많은 해외 집회를 통해 세계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2000년 우크라이나(Ukraine) 드네프로(Dnepropetrovsk)집회로 시작된 러시아어권 복음화 기간에 통역관이던 슬라바(Slava) 목사님은 구(舊)소련 지역에 약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피지(Fiji), 몽골(Mongolia), 인도(India), 스리랑카(Sri Lanka), 태국(Thailand), 대만(Taiwan), 말레이시아(Malaysia), 필리핀(Philippines), 레바논(Lebanon), 이란(Iran), 이라크(Iraq), 러시아(Russia)까지 망라된 다민족 집회였다. 한 집회에 이렇게 여러 민족이 참석한 경우는 처음이다. 호주가 이민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해와서 살고 있는지는 몰랐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다. 오늘의 시대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시간과 거리를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자리에 이렇듯 많은 국

“시드니예수중심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 젊은이들은 다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너희들이 복음의 역군들이 되어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 그들이 모여들어 함께 예배하며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드니예수중심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이민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복음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교회를 꿈꿔보자.”

목사님의 첫날 집회 메시지도 지식과 배움에 집중되었다. 목사님의 18번 메시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는 자



2024 호주 시드니 집회(10월 30~31일, Westella Renaissance Grand Ballroom)

140개 민족이 살고 있다며 목사님의 설교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 교단의 25년 해외선교 역사를 통해 많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호주(Australia) 시드니(Sydney)집회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놀라운 기록을 나타내며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현지 한인교회들의 웨방으로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교포보다는 호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를 집회와 주일에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국적을 살펴보니 무려 16개국이었다. 먼저 한국,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USA),

가 출신들이 스스로 찾아와 한데 모이기는 어려운 일일 터인데, 아무튼 이번 집회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가능성과 효울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이는 이번 집회를 두고 진행된 21일 작정기도의 결과라 확신한다.

목사님은 시드니예수중심교회에 도착하여 교인들과 여리고 작전의 마지막 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집회 장소를 7일간 일곱 바퀴 도는 여리고 작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한 날이 집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도는 날이라는 문정훈 목사 사모의 말에 목사님도 기꺼이 동참하기로 하신 것이다. 약 1시간 가까이 행진을 마치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게만 자유가 있다.”는 주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호주에 들어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진리의 빛이 되었다.

설교가 끝나자 집회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남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배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사님이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시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각색 병에서 고침을 받아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다. 역시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입증되고 있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시드니교인들과 여리고 작전의 마지막 일곱바퀴를 함께 돌았다



시드니예수중심교회 담임 문정훈 목사 (사진 왼쪽)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시드니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12:5~13)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 돈, 건강,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죄 사함입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교회 밖에서 죄 사함을 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산에 가면서 호남선 터미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서 착한 일을 계속해도 절대 부산행 버스나 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한 규칙이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죄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의 씨가 본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李) 씨 부모에게 태어나면 이(李) 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죄와 자범죄가 더해졌으니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고, 죄의 삯은 사망이니(롬6:23)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그러나 교회에 나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 자격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本質)입니다.

“뭘 소리예요? 순결한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입니까? 또 내가 남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릴랑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요일1:10). 이 또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마1:18~21).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 뭘까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 피 흘리게 하기까지’란 뜻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피를 흘려야 하나요? 이는 하나님 스스로 정한 법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며(히9:22),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

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17:11).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당신의 몸을 찢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히9:12).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代贖)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12:13).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물론이요, 어떤 죄를 지었든 따지지 않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5:7)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죄의 유무, 경중, 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롬3:23~25).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

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1:18~19).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누로 씻어도 때는 남아있습니다. 옷을 세탁해도 그건 흰 옷일 뿐, 새 옷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스치면 우리는 아주 다른 사람, 곧 의인이 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롬5:9).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니라 그의 룎라고 인정까지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에게 마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 죄를 빌미 삼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사망 권세를 진 마귀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롬5:17).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커스단의 사자가 관객에게 달려들지 못하는 것은 조련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5~57).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는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찔리고 못에 박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겼습니다(눅23:45).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골1:20~22), 이로 인해 본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히10:19). 담력이란 ‘권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2:13~18).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약의 피이기도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고전11:25). 여러분, 성령은 절대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성령의 임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라고 말씀하셨고, 보혈로 인해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언약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목욕탕이다

이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늘 우리 심령에 넘쳐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넘쳐 정결케 함을 입을 때 마귀를 대적하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다 ‘어린 양’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의 피는 보배로운 것이며, 그 어린 양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계5:13).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고통받을 능력’과 보상

유명한 가치투자자 토머스 루소는 ‘고통받을 능력’, 혹은 ‘단기적인 이익에 압박이 있어도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구축하기 위해 재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1~2년 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게 될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길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익증가가 분명히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런 기업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란 심리적으로 어렵고, 보유하고 있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기업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통받을 능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꺼이 고통을 겪을 수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주식투자가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를 ‘장기투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와 기존 보유종목들을 연구하고, 확률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소수 종목에만 투자하면서 지적으로 정직함을 유지한다면 시간이 가면서 투자자로서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식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낮은 가격에 머무를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격이 재책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그 주가의 변동성이 아니라 사업실적에 기초해 평가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주가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투자 성공은 해당 기업의 사업 실적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사업을 잘하면, 주가는 결국 그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가격이 오를 때는 때로 자만해지고, 보유종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만 자세한 분석을 재개하지요. 그러나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 기업에 어떤 나쁜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시간의 지평이 길수록 만족할만한 수익률을 올릴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란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할 능력을 갖기 위해 지금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에 이르는 길은 결국 만족지연, 저축, 그리고 복리 수익입니다. 저축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때, 그 혜택은 지연되지만 그와 동시에 혜택이 복리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이미경 권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어느 봄날, 사과나무가 화사하게 꽃을 만개했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한 사과나무는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내 곁에 오지 마! 작년에 너 때문에 꽃이 다 떨어졌어!” 바람은 잠시 멈춰섰지만, 사과나무의 소원을 존중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과나무는 바람이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꽃가루가 날아야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바람이 없으니...” 사과나무꽃은 점차 시들어갔고, 바람이 없는 탓에 수정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 사과나무는 결국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천둥, 번개, 태풍이 있어야 생태계가 살아나듯, 인생에 바람과 비가 내리는 것도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의 목회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연단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 어느 교회의 사모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겪은 고난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사모님은 세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 땅의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둘째, 천국 소망을 품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자 사모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킨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는 욥의 고백이 일평생 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더는 폭우가 몰아치고 있나요? “고난이 유익이라”(시편119:71)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크신 계획을 기대합시다! 훗날 멋진 추억담이 될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김진실 사모

:: 교단소식 ::

예수 안에서 자유(FREEDOM IN JESUS)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150:6). 지난 11월 2일 노량진 교육관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월드프레이즈 찬양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2시간 넘게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기에 월드프레이즈가 준비한 찬양으로 온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월드 목사님은 말씀 선포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는 어제의 짐, 내일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다윗과 같은 용기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

운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짐 속엔 원망, 불평, 불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기고, 믿고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란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예수중심의 청소년들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우리 교단의 미래인 이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월드프레이즈 찬양단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찬양집회’를 통해 성령충만한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찬양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보혜 생도



:: 생명의 말씀 ::

율법과 복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열정은 목사님 말씀처럼 ‘화로 없는 불’과 같아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험해진다(잠19:2).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 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최근 한 TV 고발프로그램에 등장한 한 기독교단체가 시끄럽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의 결과가 낳은 부작용이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서,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규범과 책임 없이 살아도 되는 게 복음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다. 신약시대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무너뜨렸다. 성경이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된 것은, 서로 충돌되고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형태를 바꾸신 것이다. 율법이라는 명령 속에 복음을 심어 넣어 십자가를 갈망케 하였고, 복음이라는 약속 안에 율법을 심어 넣어 사랑으로 계명을 순종케 하셨다. 율법과 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니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을 절대로 폐기하여 버릴 수가 없는 거다(갈5:13). 에텐동산 사탄의 언어는, 두 가지 방식

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었다. 선악과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도록 질문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뛰어넘도록 유도했다.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다. 이 두 가지 오해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제일 무서운 적이다. 창세 이후로 사탄은 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일한다. 이 둘은 마치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와 같기에, 그 병을 치유하는 약은, ‘바른 복음’뿐이다! 예수라는 새로운 언약(복음)만이 치유제다! 복음의 기본은, 원인 모를 은혜의 경험이다. 은혜가 우선되어야 계명들을 경외와 기쁨으로 순종케 만드신다. 그런데 선악과 사랑을 율법의 짐처럼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려 역지로 행하니 양과 수치로 환산하여 각종 억압과 인간 자랑만 넘쳐난다. 반대로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죄책감 없는 죄악의 방종만이 난무한다. 이 모두 십자가 사역을 모독하는 일이다. 복음을 아주 값싸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거다. 참된 복음이 먼저 나타나야 율법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축은 ‘예수 중심’이다. 송직화 목사

:: 한국 교회사 ::

:: 참된 깨달음 ::

감리교 첫 의료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시란돈 1865~1922)는 1885년 4월 28일 제물포에 입항, 5월 6일 최초의 감리교 첫 의료 선교사로 부인(암즈), 어린 딸, 그리고 어머니(메리 스크랜튼)와 함께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예일대와 뉴욕 의대를 졸업한 수재로서 개업한 의사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우처 선교사로부터 한국 선교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수락하지 않았다. 그 후 장티푸스에 걸려 고생하다 병이 나으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한국 선교의 동기가 된다.

서울 도착 후 처음에는 제중원에서 알렌을 돕는 일을 하다가 선교회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곳에 자신의 가족과 아펜젤러의 주택을 마련하였고, 서민을 위한 의사로 그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진료로 시작했다. 이 소식은 서울에 삼시간에 퍼졌고,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자 환자가 더욱 북적거렸다. 1년간 혼자서 치료한 환자 수만 무려 2,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것이 1887년 고종으로부터 시병원으로 명명된 정동병원의 시작이다. 1년 동안 진료한 환자가 842명이었고, 진료 수입은 34달러 83센트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로 인술을 베풀었다. 그는 진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병원에 남아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후 스크랜튼은 어머니(메리 스크랜튼)와 1886년 이화학당과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녀관(동대문병원 전신)을 설립했다. 스크랜튼은 4대문 안에 거주하는 양반 중심의 선교활동에서 벗어나 과감히 서민을 위한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몸소 실천하였다. 1886년 그의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느 날 오후 도성을 따라 걷는데 가마니 한 장 깔고 구걸하는 모녀를 발견했다. 그들은 풍토병에 걸린 환자였으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스크랜튼은 그날 저녁 그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 잘 보살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이 일이 스크랜튼으로 서민을 위한 의료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스크랜튼은 ‘민중이 있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1888년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서대문 애오개(현 아현교회), 남대문 상동(현 상동교회), 동대문 지역(현 동대문교회)에 시약소(현 이화여대 동대문병원)를 설치했다. 동료 선교사들은 스크랜튼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스크랜튼은 1890년대 초 한국의 민중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당시 한국 민중 활동의 중심지였던 남대문 주변에 병원과 교회를 설립했다. 1894년에는 일반 서민들이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동병원을 아예 상동으로 옮기고, 병원 내에 교회라 할 수 있는 상동교회를 설립했다. 이 상동교회가 바로 한국 사회 민족운동의 요람이다. 병원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친 스크랜튼은 한국 민족을 가난과 무지, 병고와 미신에서 해방하고 이들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다.

이후 이곳에 상동교회가 민족 활동의 중심지가 되며, 전덕기, 신석구, 최성모, 오화영, 이준, 이회영, 이시영, 주시경, 이동휘, 김구 등 민족 지사가 이 교회에서 배출된다. 특히 상동교회 6대 담임 전덕기 목사(1875~1914)는 애국지사들과 함께 을사늑약 무효 상소 운동, 헤이그 밀사 사건 및 신민회 조직 등, 민족 활동의 장소로 상동교회를 활용하였다. 이곳에서 활동한 독립지사를 상동파라고 부른다. 이처럼 상동교회는 한국 근대 애국과 독립운동의 본산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던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튼이 있었다. 스크랜튼은 감리교회의 감리사로 목회 사역으로는 1892년 서울지역을 담당했고, 1901년에는 서울 및 경기 남부 지방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그리고 의주, 평양, 원산, 대구, 전주, 공주 등지에 산재해 있는 감리교 선교사업들을 총괄하면서 전체를 감리하는 총감독직을 수행하였다. 교회일 뿐 아니라 정동의 시병원, 상동과 애

오개의 진료소, 정동의 보구녀관 등의 일을 돌보았고, 이에 더해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교육까지 감독했다.

또한 초기 성서 번역사업에도 참여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 선교를 관장하는 해리스 감독(일본 거주)의 친일적인 정책에 반대하여 선교사직을 사임했다. 그 후 몇 년간 구세군 및 성공회 소속으로 의료 활동을 지속하고, 천안 등에서 독립적으로 의료 선교활동을 지속했다. 1909년 어머니 간병을 위하여 서울에 요양원을 설립하였고, 1911년 평북 운산, 그리고 1913년 충남 직산에서 금광 부속 병원의 노동자를 돌보았으며, 개인병원인 시란돈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스크랜튼은 어머니(메리 스크랜튼)와 함께 개척 선교사로 한국에 와 감리교 선교사 사역 20년, 선교사직 사임 이후 개인 사역 10년 등, 총 30년의 한국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을 떠났다. 그의 나이 60세였다. 1916년 사위가 거주한 대련에서 1년간 머무르다 1917년 일본 고베로 건너가 고베 해성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고베에는 한인 노동자가 많았기에 한국어에 능통한 그는 그들을 돌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베에 거주하다가 1922년 3월 23일, 65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스크랜튼과 친하게 지낸 노블 선교사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유언을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그는 죽음을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듯이, ‘죽음이란 마치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문을 통해 가는 것과 같다’는 말을 남겼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누가복음 4:18).

스크랜튼, 그는 한국 땅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한국의 가난한 서민을 위해 헌신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복음 전도자였다.

김종춘 목사
kkd9191@hanmail.net

감사와 소중함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축구팀 주장이 되었다고 해서 뒷바라지 겸 경기장에 따라갔다. 경기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에 있던 핸드폰을 자리에 확 던져놓고 뛰쳐나갔다. 콘크리트 바닥에 수십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뒹구는 광경이 이해하기 힘들고 충격적이었다.

얼마 전엔 공부에 필요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사주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집에 밥 먹으러 왔길래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니 독서실 책상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다들 가지고 있어서 도둑맞을 염려가 없다고 태연히 말하는 게 아닌가.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서 소중함과 감사를 모르는 것일까? 부모가 고생해서 번 돈의 대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생각해보니,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기에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길 원하실까? 감사히, 소중히 섬기길 바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아이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뜨거움이 식더라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투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Good News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인이 있고, 그것을 만들거나 값을 주고 산 주인은 그에 대한 사용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천국을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사

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담대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복락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죽음이 닥쳐오면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라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면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있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자들은 하나님

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생명마저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